

한국 건축의 절충주의적 경향과 포스트모더니즘 수용

김진형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jinkim@chungwoon.ac.kr

A study on eclectic tendency of Korean architecture and acceptance of Postmodernism

Kim, Jin-Hyung
Interior Design Dept.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에서의 수용이라는 지역적 관점에서 사조의 성격과 위치를 한국 문화의 절충주의적 경향과 연결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새로운 사조의 흡수 전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봄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 건축에서의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1. 서 론

포스트모더니즘이 한국 건축에서 중심 주제로 자리 잡은 시기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이다. 현재와는 약 10여년 이상 시간이 지난 시기의 주된 사조 또는 트렌드(Trend)로서 건축 문화를 이끌던 화두이므로 그 당시보다 이제는 좀더 정리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에서의 수용이라는 지역적 관점에서 사조의 성격과 위치를 한국 문화의 절충주의적 경향과 연결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새로운 사조의 흡수 전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봄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 건축에서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건축의 경우가 타 예술 분야에 비해 특히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모더니즘은 실패했다’거나 ‘모더니즘은 죽었다’ 혹은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죽었다 등의 슬로건 아래 처음부터 모더니즘에 대한 정확한 반대운동으로 시작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처음에는 모더니즘의 폐해를 지적하며 그 치유적 대안으로 제시된 문화적 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진단한 모더니즘의 폐해는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억압구도에 의한 인간성 상실이었다. 이것은 문화예술 운동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부당하게 영향을 받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진단을 의미한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수용

2.1.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이론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대표적인 반모더니즘 운동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2.2. 포스트모더니즘의 배경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와 부의 확산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힘입어 중산 대중계층의 문화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급문화와

하위 대중문화와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대중주의 예술운동이 탄생하게 된 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모더니즘의 폐해를 성기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 낳은 억압구조로 정의할 경우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갖는다.¹⁾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이미지의 강렬함에 의해 지배되고 유지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사의 한 양식 개념으로서 보다는 다국적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와 문화적 상부구조의 의미로서 역사적 현상 혹은 시대구분으로 정의된다는 의견도 있다.²⁾

포스트모더니즘을 확실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영화 “스타워즈”에서, 디지털 샘플링을 하는 음악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적 선전에서, 그리고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tier)와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패션 디자인에도 등장할 만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3. 한국 건축의 배경과 포스트모더니즘

3.1. 한국 현대 건축의 역사적 배경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에 대한 언급은 피할 수 없는 수순과도 같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모더니즘은 아직 제자리를 잡지도 않았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전의 어떠한 양식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물밀듯 유입되었다. 이러한 외래 수용의 역사는 개항기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미군정에 의한 미국의 영향 이후 한국의 본격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1960년대 이후로 이어진다. 서구 사회와 달리 외세에 의한 영향으로서 과정을 생략한 근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전통의 가치추구

전통은 개화기를 거치면서 서구의 국가들이 거처 온 근대화의 과정을 생략하고 속성으로 진행되어온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명제 하에 논의되어온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전통은 분분한 논의의 대상으로서 많은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었다. 우선 고유섭과 조지훈의 미술과 문학에서의 전통 논의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형이상학적인 성격 때문에 아직도 전통은 명료하게 규명될 수 없는 성격인 채로 남아 있다고 본다. 또

한 한국 미술과 문학과는 다른 건축의 조형 예술로서의 성격상 주로 전통 논의는 시각 요소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1970년대 말부터 국내에 소개된 포스트모던 건축은 우리 건축의 한 흐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새로운 인식하에 포스트모던 건축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가장 중시되는 테마는 전통과 역사의 존중으로 고전어휘를 사용하여 상징, 암시, 은유 등의 기법을 구사하여 전통 계승의 문제에 기여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기능에 대한 고려보다는 외관의 형태에 더욱 치중한 고전적, 기하학적 건물이나 상징적 건물이 무분별하게 복제되었고 전통 계승이라는 기치 하에 건축물의 일부 장식에 한옥의 기와 지붕, 처마의 공포, 기둥 등을 도입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서구의 포스트모던 건축의 직접적인 모방과 표현주의적 수법에 의한 상업주의의 만남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건축이 상업성과 결합하여 개성에 따라 비교적 자유로운 표피를 갖는 건축을 창출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한국 상황은 10.26사태와 12.12사태 등 군부의 충돌과 정치 장악에 의한 5공화국의 등장에 따른 군부 독재의 연장선과 이로 인한 폭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거치며 동시에 대중의 불만과 정치적 참여를 돌리기 위한 구실로서의 대중문화의 급속한 개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전 60, 70년대보다 한층 높아진 경제적 능력과 더불어 문화적 관심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이 큰 계기가 되었었다. 이러한 격동기에 한국의 건축은 사회의 경제적 풍요와 대중소비사회에 발맞추어 표현적 양상의 건축물들이 나오게 된다. 이 시기의 건축은 개방적이며 다원적인 성향을 띠는데 이전 시기와 크게 구분되는 점이다. 또한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합리주의의 사고 위에 한국적 정서를 함께 담으려는 의지를 내포하는 특징이 있고, 전통에서 연유한 토착성, 또는 작가마다의 개별적인 낭만성이 융합되어 독특한 시대적 특징을 나타낸다.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생활양상을 떠올리기만 해도 아파트, 자가용 자동차를 비롯해 서구의 패스트푸드의 도입과 확산 등이 우리의 대중 유통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해왔다. 유통 구조뿐만 아니라 뉴미디어의 출현 및 소비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기본의 리얼리티가 이미지 중심으

1) 임석재 ibid. pp.61

2) 임석재 ibid. pp.64

로 바뀌어 왔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실생활의 곳곳에서 일어나자 산업사회의 현실, 좀더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후기 산업사회의 양상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결과 종래의 창작자 위주에서 수용자 위주로, 단색 위주에서 채색위주로, 기득권 위주에서 중간층 중심으로, 평면에서 다양한 매체로, 의미탐구에서 소통중심으로 형질을 변경하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4. 한국의 절충주의 경향

4.1. 절충주의 이론

절충주의라는 용어는 모든 디자인은 어떤 역사적인 선례를 선택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얼마나 그럴듯하게 모방하느냐 하는 문제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묘사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다. 그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양한 원칙과 방법, 그리고 양식들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용어는 철학에서 통용되어 왔는데 “절충주의 철학”은 여러 가지 출처들에 근거를 둔 것이다. 디자인에 있어서 그것은 역사적인 선례들로부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끌린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실행법을 의미하게 되었다. 절충주의는 특히 미국에서 번성하였는데 아마도 미국에서는 무엇을 지어온 과거가 너무도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³⁾

1820년 경으로부터 20세기 초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소멸된 절충주의는 그 형태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역사적 혹은 동시대적 건축물을 참조하게 되는데 이는 건축적 인용의 형태로 파악가능하며 그 의미는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적 경향과 맥을 같이 하게 된다.⁴⁾ 절충주의가 대두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한 산업혁명으로 기계공업시대가 전개되어 대량생산방식이 생겨나고 동시에 인문과학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양식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비판을 갖게 되어 한정된 과거양식의 재현에 대한 무의미함을 깨닫고 새롭게 과거양식 전체를 돌보게 되었음을 들 수 있다. 이 절충주의 양식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각 작가가 자기 주관에 의하여 각종 양식의 장점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절

충주의 건축은 르네상스, 고딕, 비잔틴, 아시아 등 여러 양식을 자유로이 수용하게 되었다. 선택적 기능을 지닌 모방의 원리에서 프랑스의 건축이론가들은 디자인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내에서 다음과 같은 특색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1. 집단적인 관습으로 실용성이 있는 경우
2. 건물구성이나 대지계획, 입면 등, 종합적인 재료와 구조체계의 실제적인 이용
3. 장식 또는 꾸밈

4.2. 한국 건축의 절충주의 경향

김중업의 한국미술관은 대표적인 절충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립 공주 박물관은 한때 모더니스트들로부터 전통적 요소의 피상적 모사라는 질타를 받던 일군의 작품 중 하나인데 현재에 와서는 한국성의 표현과 지역주의 건축이라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작품이 시대에 따른 사조의 유행에 부침(浮沈)을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전통의 표현은 그만큼 피상적일 수도 있으며 정신의 다양성이 내포되는 개념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2 한국미술관, 김중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이전의 작품의 표현 방식은 주로 국제주의 양식의 구현이라는 단선적 개념의 모사에 가까운 표현이 있어왔고 모더니즘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우리 전통을 표현하고자하는 시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유입된 이후의 작품을 살펴보면 이전시기보다 훨씬 자유로운 표현의 바탕위에 은유와 직설법이 교차하는 다양한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전통의 표현에는 앞서의 모더니즘 시기 즉 60년대 말과 70년대의 전통성 시비에 휘말린 건축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요소의 피상적 모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 요소의 차용은 적극적이기 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에 따라 부분적인 차용과 패러디의 형식으로 응용되는 양상이 있었다.



그림 1 국립공주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은 모더니즘적인 매스(5개의 마름모꼴 평면)와 백색 추상적 표피 표현 그리고 전통요소

3) John F. Pile, 홍승기 역, 실내디자인사, pp.244
 4) 배준현, 전명현, 현대건축의 절충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17호 p.166

인 돌기둥의 중앙 집중적 배치를 써서 다양한 요소의 절충을 보여주고 있다. 화폐박물관은 전통성의 표현에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口’자 형태의 겹집 형 평면에 중정에 천창을 둔 구조이다. 표피 마감은 전통의 전돌을 떠올리는 석재의 얇은 띠의 형태와 기둥의 모양이 전통성을 상기하게 한다. 파사드에는 옛날 동전을 부조로 표현하여 이곳의 상징성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에 따른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건축의 특징을 절충주의적 경향의 작품위주로 살펴보면 이 전시기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응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해체주의와 하이테크의 경향도 표현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사조의 표현에의 응용은 다양한 양상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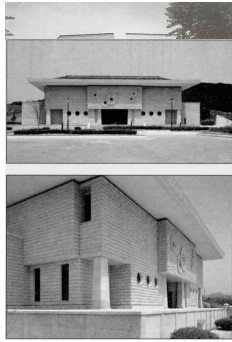


그림 4 화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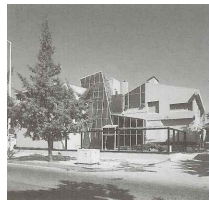


그림 5 국제회랑

5. 결론

초기의 포스트모더니즘 연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명료한 포스트모더니즘 즉 이론화를 위해 개념을 단순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사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시대정신⁵⁾의 관점으로 보는 시도 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대정신을 단정적으로 적용하여 그 의미를 좁게 두고 포스트모더니즘을 해석하는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오해에는 이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었는데 외래의 수용이라는 전달 문제 또한 그 원인중 하나라고 본다. 본질적으로 외래문화는 전달과정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해석(Decoding)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5) 가령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을 그 시대의 대표작으로 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는 역사가의 사관(史觀)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정적으로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역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다시 써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나름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이러한 특질을 형성하는 인자 가운데 절충주의적 태도는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전통의 추구 또는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고 안에서는 건축의 역사적 및 토착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진 건축가들에 의해 전통이 보다 과감하게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근대건축가에게는 금기로 되어있던 역사와 역사적 양식도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장식은 더 이상 죄악(罪惡)시 되지 않았으며, 건축 의미의 매개체로서의 벽의 중요성이 다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중세와의 비교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의 시대에서 다시 이미지의 세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과거 요소의 피상적 모사라는 비판을 받던 과거의 인용은 좀더 비판에서 자유로울 바탕을 마련한 셈이다. 60년대부터 한국 건축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인 전통의 문제, 즉 과거 유산의 승계 및 주체성(identity)의 확립이라는 주제는 절충주의를 매개로 하여 과거 유산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주의, 지역성과 토착의 가치(Ethnic Value)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포괄적이고 이미지 중심의 성격에 의해 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결과로서 80년대 중반이후 특히 건축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건축어휘로서 조형적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 [1] 임석재, 신추상과 네오 코르뷔지안 건축, 북하우스, 2003
- [2] Robert Ventur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The Museum of Modern Art, 1977
- [3] 엘리너 하트니, 이태호역, 포스트모더니즘, 열화당, 2003
- [4] Johan Huizinga, 최홍숙 역, 중세의 가을, 문학과 지성사, 1988,
- [5] 박길룡, space 2004.09, second modernity
- [6] 원정수,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김동욱 편, 청하 1992,
- [7] Charles Jencks, 현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 태림문